태풍 '말로' 한반도 비켜간다

남해상 거쳐 빠져나가 … 강수량 30~120㎜ 일부 폭우 피해 우려

제9호 태풍 '말로(MALOU)'가 7일 전남 남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상돼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제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해 전남 지역 피해가 45억원에 이른 가운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태풍의 영향권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긴장하고 있다.

6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말로'는 이날 오후 6시께 서귀포 남남동쪽 80㎞ 부근 해상을 매우 느리게 통과해 북동진하고 있다. 태풍은 소형급이지만 이동 속도가 느려 영향권 내 집중 호우와 강풍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7일까지 예상강수량은 30~120㎜(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많은 곳 250㎜ 이상)이다.

이미 고흥·보성·여수·광양·장흥·강진·해남·완도·영암·무안·함평·영광·목포·신안·진도 등 전남 15개 시·군에 6일 오후 3시 폭풍해일주의보가 발효됐으며, 7일 오전 6시께 여수 남쪽 약 60㎞ 부근 해상까지 접근할 것으로 예보돼 이날 전남 남해안 지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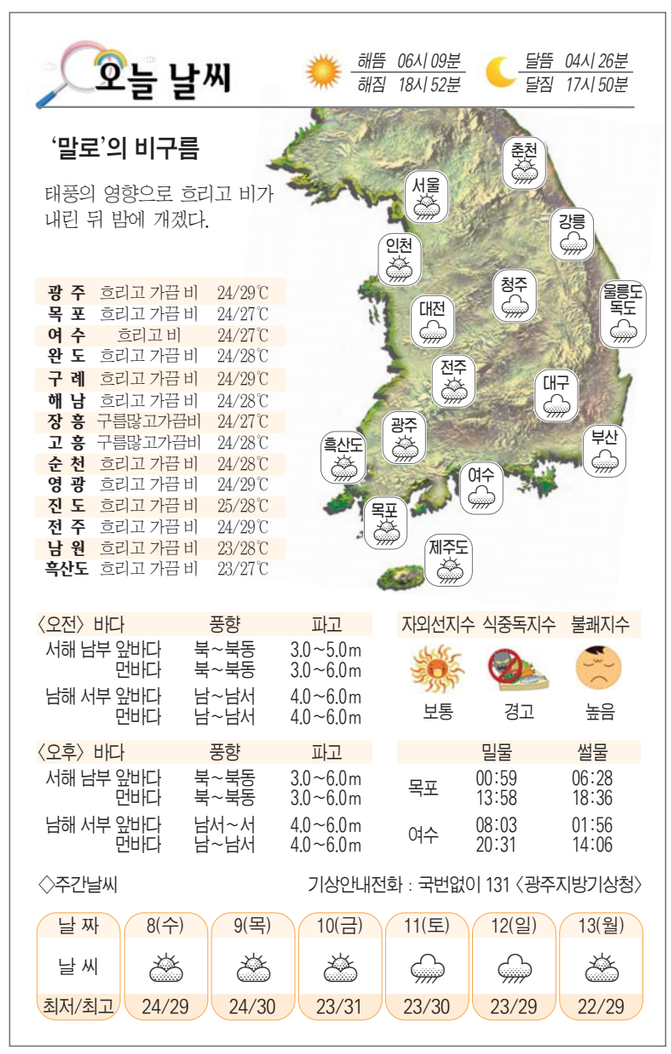
한편 기상청은 "원래 남해안에 상륙해 경남 내륙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태풍이 전향하면서 이동속도가 빨라지고 동쪽으로 편향하는 경향을 보여 태풍의 눈이 한반도에 상륙은 하지 않고 남해상을 따라 대한해협을 지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불과 5일 전 태풍 곤파스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43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전남지역은 비상 상태다. 전남도는 6일 추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각 시군에도 철저한 대비를 특별 당부했다.

곤파스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도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배수로를 점검하고 과수나무 지지대를 설치하는 한편 각종 시설물을 점검하는 등 태풍에 대비해 분주히 일손을 움직였다.

각 해상에서 조업하던 어선들의 피항행렬도 이어졌다. 남해서부와 서해남부 먼바다에 태풍경보가 발효되면서 목포와 여수, 완도항과 전남 섬 지역을 잇는 55개 항로 중 일부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다. 지리산 등은 8일까지 입산이 통제됐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광주 외고 설립 속도낸다

시교육청 규칙 제정 … 본격 설립 절차 돌입

광주시교육청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외국어고 설립이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특수목적고 지정과 운영 등을 규정한 시행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심의위원회 구성 등 본격적인 설립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감은 특목고 지정기준과 지정, 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시도 교육청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했다.

지정·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등 내부와 외부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내부 위원으로 부교육감,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교육정책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 등 5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며 외부 위촉위원으로 의회, 교육계, 법조계, 학부모 등이 참여한다.

시 교육청은 오는 9일 규칙 공포와 함께 심의위원 위촉이 마무리되면 지난해 외고 전환 신청을 했다가 취소한 후 단독 신청한 광주 대광여고를 대상으로 심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 교육청은 심의 후 교과부에 지정 협의를 요청하게 되며, 2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하지만 외고 설립을 놓고 안순일 교육감과 장휘국 교육감 당선자간 의견 차이가 커 심의 과정을 전후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또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중심이 된 협의체가 구성돼 토론회 등 심도있는 협의 등을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안순일 교육감은 "외국어고 설립은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과 매년 400명이 넘는 우수 인재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장휘국 당선자는 "평준화 근간을 흔들고 귀족학교 논란이 이는 등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올해 초 울산과 강원에서 외고가 개교함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외고가 없는 곳은 광주가 유일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고추 매운성분 암 발생 촉진"

건국대 이기원 교수 논문

전세계적으로 각종 음식요리에 애용되는 고추의 매운 성분이자 진통제로 이용돼온 캡사이신(capsaicin)이 암 발생을 촉진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6일 건국대(총장 김진규)에 따르면 이 대학 특성화학부 생명공학과 이기원 교수팀은 캡사이신이 암 유전자(EGFR)의 활성을 유도, 염증 유발 및 암 발생에 중요한 단백질(COX-2)을 발현시킴으로써 피부암 등 암 발생을 촉진시킨다는 결과를 증명했다.

서울대 이형주 교수, 미국 미네소타대 앤 보드 교수 등이 공동 참여한 이번 연구결과는 미국 암학회 발간의 권위 있는 학술전문지 '암 연구' 9월호 표지논문으로 게재됐다.

무엇보다, 이번 이 교수팀의 연구는 피부에 바르는 형태의 국소용 진통제는 물론 암세포 고사를 유도하는 효과가 입증됐던 캡사이신이 피부암 등 암 발생을 촉진하는 과정을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TRPV1 단백질 등 암억제 물질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성인은 캡사이신을 다량 섭취했을 경우 암 발생이 훨씬 촉진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캡사이신은 이 물질과 결합해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중요한 단백질 TRPV1이 결핍됐거나 약한 민감성을 보일 때 암 유발 단백질인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와 결합해 활성화시킴으로써 피부암 발생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TRPV1 유전자가 결핍된 실험쥐를 이용해 증명했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연합뉴스

로스쿨 졸업생 변호사시험
2012년 3월 시행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는 변호사시험을 2012년 3월 시행하고 상반기(가능한 4월 말) 안에 합격자를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합격자 결정 방법은 위원 6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연구·검토한 다음 그 결과를 변호사시험 관리위에 보고해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안에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5·18 묘지관리소장 이형주씨

국립 5·18 민주묘지관리소장(4급)에 이형주(52·사진) 국가보훈처 기념사업과장이 6일 임명됐다. 마땅한 적임자를 찾지 못해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돼 온 지 50일 만이다.

목포 출신인 이 소장은 단국대를 졸업한 뒤 국가보훈처 기념사업과·언론미디어팀, 순천보훈지청 관리과 등에서 근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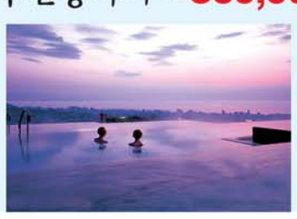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SINCE 1982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매우 잘 들립니다. ✳안보입니다. ✳가격이 맘에 듭니다.
www.kjhr.com
국제보청기
본 점(062)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
충장점(062)227-9970
순천점(061)752-9940
목포점(061)262-9200
익산점(063)851-2422

호남을 대표하는 여행 브랜드
조이트래블 여행사
JOYTRAVEL
대표전화.(062)234-322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FAX. (062)234-3141 http://www.joy2000.co.kr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대표이사 최 금 환

★카메리아 ★王대박 럭셔리 ~ 스기노이 온천♨ 3일 ₩299,000~
12회 특가행사 9/1,5,6,8,12,13,14,15 출발 (15명부터 출발 가능)
★ 가을 구중산 등반& 벳부관광까지 4일 ₩329,000~

일본
특가상품 황금 연휴 추석 일본 규슈관광 ALL포함
★ 실속 북큐슈 온천 (벳부 족탕 체험) 특가 ~ 4일 ₩549,000 9/18 ,9/19,9/21
★ 구중산 스지유 마을 전통료칸 숙박 ~ 4일 ₩569,000 9/19 (출발확정)
★ 큐슈 후쿠오카 시호크 특급 호텔 ~ 4일 ₩599,000 9/18 ,9/19
★ 일본속의 유럽 하우스텐보스 추석연휴 가족과 함께 4일 ₩629,000 9/22(출발 확정)
★ 카메리아 추석 연휴 료칸 온천 3일 ₩329,000 9/17,9/18,9/19
★ 가을 규슈 구중산등반 & 벳부관광까지 ₩369,000 9/04,9/12(광주,출도착)



무안출발 전세기
★무안 장가계 직항★
[무안출발 전세기] 장가계 직항 전세기
기간 9월17~11월30일 (화,금출발) 849,000~ ₩
★장가계관광의하이라이트 "천문산관광포함"
★하루의피로를 풀어주는 "발맛사지체험"
★행사차량에 시원한 생수 상시비치
★무안 대만 직항★
[무안출발 전세기] 대만 직항
기간 9월18,21일 (토,화출발) 669,000~ ₩
★야류해상공원중정기념관,국립고궁박물관,충렬사관광
★대만 야시장,온천욕,타이페이최고의번화가(서문정거리)
★샤브샤브,몽골리안 BBQ등 특식제공
★ 장흥-제주도 2박3일 ★
출발일:10/5,13,22
₩139,000
★ 2010 가을 & 겨울★
미국 & 캐나다 일주 9박10일 여행
무비자! 미국&캐나다! 지금가시면 날씨좋고 ~~요금 좋고
매주 (토요일)2명 이상 출발보장 출발일 10월 9,16,23,30 ~
★신이만든 최고의걸작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
★기적의도시, 밤의천국 라스베가스
★미구정치 /경제의중심 워싱턴 ,뉴욕
★세계최대 감동의 파노라마 나이아가라 폭포
★캐나다 여행의 중심 벤쿠버 & 록키산맥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 제동다 2003-1호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공제 가입업체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지역
•공통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해외상품: 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경비없음 (단,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택관광, 각국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상품에 따라 다름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트래블